

지역 소식통

완주군 가족센터
고부관계 개선 교육

완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의 고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족센터는 최근 봉동읍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고부관계 개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지원 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고부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세대차이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고부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원예체험을 통해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박모씨(66)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들이 모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대일국제종묘, 배추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역 사회단체, 복지시설, 노인요양센터 등을 대상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ESG 경영실천, 무·배추 기부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복한실버요양센터, 김제노인복지센터, 사론의집 등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봉사단체 하모니 회원 120여 명이 참여했다.

기부 대상 작물은 김장용 배추, 무 등 총 3,300여개이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제공될 김장 김치 나눔 봉사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행사를 위해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인 대일국제종묘에서 무·배추 전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함으로써 행사를 더욱 뜻깊게 해주었다.

사회·봉사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우수한 국내육성 채소작물을 지역사회 환원해 주어 깊이 감사하며, 불가사수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나선다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농업·식량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용역회의에서의 자문받은 내용인 '새만금 양곡부두의 필요성과 타 양곡부두의 사례분석, 식량콤비나트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반영하였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에

대응하여 새만금의 장점을 활용한 식량콤비나트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국제 정세 악화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곡물 수출국들의 자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 보고회를 통해 국내·외 곡물 수요와 공급량 현황 및 식량위기 대응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새만금 식량콤비나트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식량콤비나트 조성 계획을 국가 단위 상위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정 시장은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식량콤비나트 조성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식량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지난 24일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 생태숲 조성지 일원에서 1일 숲가꾸기 체험행사 및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제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개최

산불방지 캠페인도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24일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 생태숲 조성지 일원에서 1일 숲가꾸기 체험행사 및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과 김제산림조합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작업과 지주목 정비, 비료주기 등을 실시해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더 건강하고 가치 있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김제시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

간을 맞아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예방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산림정화 활동과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숲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일도 중요하며 다양한 녹색공간을 조성·관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평가대회

경천면 만수동마을 등 6곳 '최우수' · 고산면 상삼마을 등 6곳 '우수'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 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가 자살 예방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평가대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열린 평가대회에는 관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받은 43개 마을의 이장과 생명지킴이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경과보고 및 우수마을 시상과 마음건강교육으로 이뤄졌다.

우수마을은 한 해 동안 이뤄진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점검표를 잘 이행한 마을이 선정됐다.

최우수 마을은 △경천면 만수동마을(이장 장동우) △용진읍 가목마을(이장 정승철) △봉동읍 신덕마을(이장 이진호) △봉동읍 고천마을(이장 오희구) △고산면 원산마을(이장 구자익) △용진읍 지동마을(이장 김종근) 6곳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도 6곳으로 △고산면 상삼마을(이장 강성형) △고산면 동봉마을(이장 유관식) △소양면 용연마을(이장 한보현) △삼례읍 신흥마을(이장 최병용) △운주면 월당마을(이장 김용덕) △구이면 원계곡마을(이장 이상섭)이 수상했다.

마음건강교육에서는 마을이장과 참여주민을 서로 분리해 참여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됐다.

마을 이장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지역주민들은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완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평가대회를 열고 있으며, 농약안전보관함은 올해 11월 기준 완주군 43개 마을 1,467가구에 보

급됐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이후 해당 마을의 음독 자살률은 0%로 음독자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급마을 지역주민 88%가 '농약안전보관함이 농약사고와 음독자살 차단에 예방이 된다'며 해당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올해 신규 보급마을인 동상면 시평마을 김경대 이장은 "여러마을 이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좋았고,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조용했던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다"며 "앞으로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마을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며,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김제마루담' 회원들이 워크숍을 개최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법, 인형극으로 배워요”

완주군, 삼봉지구 입주민 대상 '미나야 고마워' 공연 진행

완주군은 최근 삼봉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인형극 '미나야 고마워' 공연을 진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완주군의 깔깔깔 극단이 준비한 인형극에는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에서는 바른 식생활로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레크리에이션, 문제 맞추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전라북도 아토피·천식교정보센터에서 후원한 아토피 캐릭터 막대풍선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연과 함께 보건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영양, 구강 등)을 병행했다. 입주민들의 기초건강증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상담을 실시하고, 1:1 운동처방

상담, 흡연, 영양교육을 진행했다.

한 보호자는 "편안하게 동네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재미 있었다"며 "아이와 함께 공감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은 "주민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지원과 포괄적 연계·협력에 통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요”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김제 마루담 워크숍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지평선 어울림센터에서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김제마루담'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과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연구원 조경욱 박사 등 2명을 초청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 취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시립도서관, 수변공원 및 놀이터,


학교 앞 등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루담 회원들은 백산면 부거리 용기가마에서 꽃병을 만드는 힐링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지고 2024년도 서포터즈단을 이끌어갈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짜임새 있는 서포터즈단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